"과단위 학자조직 건설 시급하다"

기획좌담 … 양캠퍼스 학원자주화사업을 평가한다

양캠퍼스 제24대 총학생회장 선거가 완료되었다.
이제 제23대 총학생회는 기간 사업을 정리, 평가하고 있으며 다음 총학생회로의 이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제23대 총학생회 사업중에서 학생들의 복지, 교육문제와 밀접히 관련돼 있는 학원자주화사업을 양캠퍼스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사무국장과 함께 토론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註〉

- 사회:제23대 총학생회 사업이 활발한 평가속에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년간의 총학생회 사업중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학원자주사업에 대해 올바른 평가와 이에 따른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엄홍준:우선 올해 총학의 처음 사업인 등록금투쟁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등록금투쟁은 학생들의 경제적 요구가 관련돼 있어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총학생회 예결산심의위원회을 중심으로 한 등록금투쟁은 교육재정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국고보조금과 재단전입금의 확대 및 참여등이 중요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못해 수치놀음 이상이 아니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장규:사실 올해의 등록금투쟁은 작년과 별반없이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 내세운 정부의 물가인상에 따른 등록금인상이라는 입장을 현재의 논리상, 예산구조상으로 학생들이 대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대협 차원에서 등록금투쟁을 연대하려 했으나 정치투쟁과 맞물리면서 실패한 것입니다.

▲정정식:등록금투쟁은 명칭자체를 교육재정확보투쟁이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단, 학교, 학생은 일치하여 정부를 상대로 하는 싸움을 하여야 합니다.

▲엄:이번 등록금투쟁중 예산편성에 있어서 학생참여, 재단의 참석등 양캠퍼스 연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정:실제로 재단참석의 부분은 연대가 필요한 부분임이 틀림없습니다. 나름대로 회의등을 걸쳐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나 성과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 사회:학내복지 사안에서 특히 건물부분은 올해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서울 복지회관과 수원의 도서관조기완공 합의에서 일련의 성과물 획득보다는 과단위 조직을 강화하며 학생들을 좀더 의식화, 조직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봅니다.

▲정:각 학과는 도서관조기완공투쟁과정중 건설된 도서관대책위원회가 형식을 바꿔 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운영위에서도 건설소위원회가 도서관투쟁 이후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울의 경우 복지회관 건설을 총학생회가 성과적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협상과정등에 있어서 많은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복지회관이 대학생활에 있어 편의시설의 증가수준 밖에 되지 못한다는 학생들의 문제의식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앞으로 복지회관이 건립되고 그 안에서 이익금을 얻게 될때 학생 스스로 소비자협회 등을 조직·운영할 수 있는 등 학생들 스스로가 학내 복지문제에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냐는 것이 앞으로 학자의 올바른 관점입니다.

▲엄:특히 복지회관과 중앙도서관 완공투쟁의 경우 일부에서는 총학생회가 1학기 정치투쟁후 뚜렷한 이슈가 없어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제기하였고 이에따라 치밀한 계획성 부족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복지회관은 88년도 처음 구상된 이후 89년 합의만 한 채 후속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이상 미룰수 없었기에 올해안으로 복지회관문제를 끝맺으려 했던 것이 준비미흡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점을 이번 복지회관건립투쟁의 한계라 인정합니다.

▲정:도서관 투쟁의 경우 1학기때 조직건설등 사전 준비작업을 통하여 2학기때 일어났던 것인데 학생들에게 단순히 도서관이 없으니까 세워야 한다는 식이상의 올바른 관점을 세워내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오류라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사안은 이 정도로 끝을 맺고 대학교육과정, 교과과정 등에 대해 논의를 해 보도록 합시다.

▲김:전체 학자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교·강사 채용입니다. 작년 5개학과에서 교·강사 채용이 준비되어왔고, 식품영양학과에서 처음으로 지원자에 관한 공개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원하는 교수를 모셔오는 것이 핵심적문제로 제기되며 올4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학생들의 참여가 5월투쟁과 맞물려 관심들이 학외로 돌려지면서 정치문제로 국한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각과의 특성에 맞게 중앙에서 뒷받침해주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수원캠퍼스의 경우 1학기 초 사회계열과목의 강사채용이 문제가 되어 부총장실 점거농성까지 들어갔었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주장한 강사가 채용되기는 했으나 과정상에서 학생참여등 학생들의 적극적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교·강사채용에 있어서 학생참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류심사와 공개강의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생회체계와 주체들의 부족등의 한계에 부딪쳐 몇개과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 중앙 교육과정심의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김:교수들의 교권에 대한 이해부족과 과단위에서는 스승과 제자라는 봉건적의식이 강하게 남아 기본적 한계를 지니고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학생 스스로 교수채용 참가에 정당성을 찾지 못하는 점을 계속적인 교수·학생간의 자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보충하고 서류심사를 전면 공개화시키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회:현재 학내 구성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학내 모순점으로 크게 학원안정화대책이후 학사경고제, 동아리사찰등 학생회탄압과 노동조합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의 기간 사업들을 평가해 봅시다.

▲엄:일용직노동자 노조가입과 부당인사이동, 비상대책위원회 불인정 등 노동조합이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고 또 총학생회도 이 상황을 노조탄압이라고 규정짓고 있는데…

▲정:서울·수원이 통합되면서 수원의 경우 일할 주체가 서지 못하면서 각 캠퍼스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전체적 통괄기구는 있되, 서울·수원에 각각 지부를 건설해 지부장 나름의 사업을 전개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사회:마지막으로 학생참여와 지지가 부족해질때 학사경고제와 같은 외부압력에 어떤 대처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김: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관심이 필요하며 학생·간부가 밀착하여 앞으로의 사업을 벌여나가는 것이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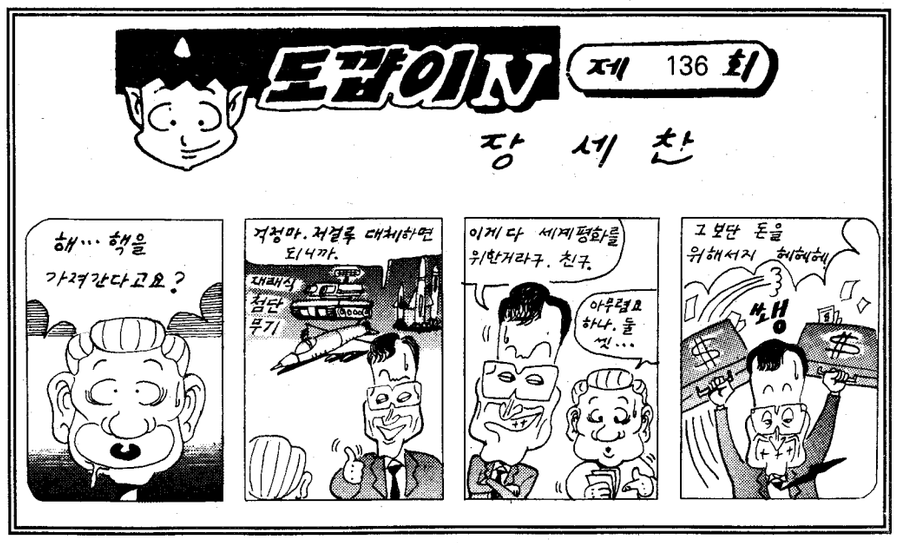
- 사회:예 이번자리는 양캠퍼스 총학생회의 일년간 학자사업의 성과와 오류를 짚어봄으로서 앞으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 사진은 도서관 조기 완공을 위한 1차 협상 모습

일 시: 지난 21일 오전 11시
장 소: 본사 2층 회의실
사 회: 김기태 記者
참석자: 김장규(신방·4) 서울 학자추 사무국장
정정식(일문·4) 수원 학자추 사무국장
엄홍준 記者

복지회관, 도서관 등 교내 건축사안 진전

교수채용·교과개정 학과 실정에 맞는 정책 아쉬워



코쟁이 귀신 잡기 풍물굿

◇… 잡귀들은 이땅을 떠나거라

얼마전 고황골의 임간교실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 달려가 보니 임간교실에서 고황골을 지키는 신령님께 고사와 풍물굿이 벌어졌던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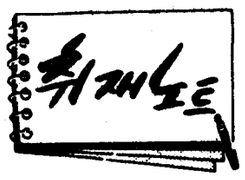
이것을 본 노트子 생각하기에,

WHNS귀신, 코쟁이 귀신들이 獅형들의 징과 꽹가리소리에 놀라 저멀리 쌀가지고 노는 米국으로 날아가 버렸으면 하는 마음 간절할 뿐이었소이다. 그려.

◇… 수위아저씨의 수난시대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저멀리 등용문 쪽에서 수위아저씨들의 비명아닌 비명소리가 들려온다기에 노트子 알아보니, 다름아닌 입시철을 맞아 학교를 찾아오는 예비獅형들의 차량행렬 때문이라나.

주차문제로 온갖 욕설과 시비를 받고 있는 수위아저씨를 보고있자니.



높은점수를 얻기위해 개인 이기주의에 물들어버린 예비獅형들의 모습이 측은하게 보일 따름이오…

◇… 차와 주인

최근에 차도 주인을 잘 만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 화제.

인천시 경찰간부들이 시민들의 차량을 견인한 다음 자신들의 고급승용차들을 불법주차, 장시간 술파티를 벌이셨다고. 노트子 생각키에 쉴자리가 없으면 밀어버리기부터 하니, 그차도 곧 대머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오.

◇… 빛좋은 개살구

'제3세계에 무기 팔아먹자'라며 정부는 신종 뻥튀기를 튀기고 있다는데.

다름아닌 국제군수산업전시회가 민초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최되었던것.

전시회를 빙자하여 외국의 첨단무기를 들여오려는 음흉한 No나탓님, 결국 같은 민족에게 사용하기위해 무기를 반입하려 하시는가요.

◇… 승용차의 한탄

주차위반을 당해 '붉은 불명예 훈장'을 수여받은 승용차가 주인을 잘못만나 창피하다고 목맨소리를 한다기에 노트子 알아보니.

차주인인 두남녀가 주차위반으로 둥그런 경고장이 붙은것에 대해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보여 주위사람들로 부터 손가락질을 당했던 것.

노트子 생각컨대, 다음부터는 차가 아니라 위반한 獅형들의 이마에 경고장을 붙여야 하겠소이다.

朔風

두꺼운 스웨터 외면하는 짧은 치마

찬바람이 부는 데도 시내의 중심가엔 짧은 치마가 많다. 빌딩숲가에 총총이 내딛는 짧은 치마가 이 도시의 콘크리이트 바닥에도 잘 어울린다. 그만큼 이 도시가 따뜻해진 탓일까. 여름엔 냉방, 겨울엔 온방으로 완벽한 시스템으로 구성된 우리네 주거, 직장의 변화가 주는 신풍속도 같다. 계절마저도 아연해 지는 시대로 접어들었나 보다.

시외에 구석진 골방, 한 평보다는 조금 커보이는 다락방에 쓸쓸이 여생을 보내는 촌부의 그늘진 주름살엔 초겨울 바람은 매운듯 보인다. 아직 살을 에는 삭풍은 없지만 온몸에 때가 흠씬 먹은 두꺼운 스웨터가 걸쳐있다. 이곳은 겨울이 너무 빨리 왔는가 보다.

급속한 경제의 팽창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이루 말할 것 없이 많다. 보리고개가 없어진지 오래요. 거지왕초가 얼굴을 가린 채 옛 추억으로 남아 있으니 말이다.

인간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부와 권력'의 점철이었다. 수많은 인물과 인물들의 주위엔 그리고 사회의 지각변동을 유발했던 사건의 뒷모습에 항상 내재되었던 그것. 이 '부와 권력'의 아편은 오늘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니 더 심한 중증으로 발전되어 개인과 인물이 아닌 사회전반에 걸쳐 신드롬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계층화가 심화되어 벽너머의 인간들에겐 관심이 없다. '부'가 주는 나만의 안락과 편안함에 위만 보일 뿐 아래의 함성은 들리지 않는다. 가난한 자는 게으르고 부와 권력을 쥔자는 부지런한 자임을 확인해 주는 사회의 기강조차 무너진 지금 게으른자도 부와 권력을, 부지런한 자도 가난해질 수 있다는 새로운 명제를 우리들은 창조해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회면에 등장하는 일간지 뉴스를 매일 접해보면서, 지면 곳곳에 스며있는 범죄와 악의 근원 태반이 지금까지 우리사회에 팽배해진 '한탕' 아니면 '정신적 빈곤감'으로 유발된 것임을 알수 있다.

어린아이의 유괴라는 도식엔 '금전'이라는 마수가 연결되고, 경제범은 한건으로 게으른 자도 부와 권력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경제종교의 맹신도들이 아닌가 싶다.

난폭과 지능화되어가는 범죄의 온상이 우리들의 사회라는 데에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짧은 치마가 활보하는 콘크리이트 숲에서 나만은 왜 추위를 느끼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부호를 붙여보며 상대적 박탈감에 '화풀이 자동차'를 몰아버리는 군상들이 잉태되는 사회.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추구했던가를 다시한번 일깨워 보아야 한다.

차가운 겨울에 서로가 대비되는 추위감각이 주는 이상한 반발감과 박탈감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 내었는가.

짧은 치마와 두꺼운 스웨터가 우리들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동시성의 모습이라면 일간 떠드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피상적인 해결책은 무소무위한 차선책일 수 밖에 없다. 따뜻한 온정이 없는 사회에선 따뜻한 스웨터의 존재는 그저 불편한 가치일 뿐이다.

오늘도 따뜻한 빌딩숲사이, 여전히 활보하는 짧은 치마의 군상들은 시외의 다락방에서 두꺼운 스웨터를 껴입은 촌부의 모습에 관심이 없다.

다만 누가 어떻게 부와 권력을 어떤 수단으로 잡았는가 라는 탄성과 감탄으로 단단한 콘크리이트 바닥을 걷고 있다.

(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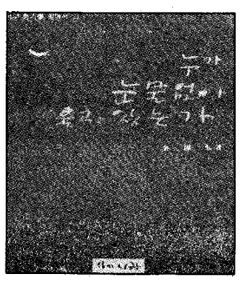
하늘엔 별, 들에는 시드는 낙엽향기
당신에겐 떠나는 향기,
내겐 눈물같은 詩의 향기

계간시지 시와 시학 겨울호

박두진:특별연재시 水石靈歌Ⅲ
조병화:시로 쓰는 자서전

내가 좋아하는 한 편의 시
임권택, 김동호, 이장호, 최종원
조정권 집중연구 서준섭, 권오만, 김유중, 조창환
이규보집중연구Ⅱ 김진영, 박성규, 신용호
논문 고석규론, 김윤식
모더니즘론: 신범순
서정주:화사재조명 김종회, 고형진, 송기한
신작소시집: 민영, 이건청, 김종철, 박태일, 정한용
漢詩감상/ 예술칼럼/ 교과서 수록시 평설
창간호('91봄호)박용래, 정약용집중연구
제2호('91여름호)이수익, 랭보연구Ⅰ
제3호('91가을호)송수권, 랭보연구Ⅱ
전 화:594-0928
FAX:594-0929
시와 시학 신국판 400면 값5,000원

한국명시 감상서
누가 눈물없이 울고 있는가
金載弘지음



□ 마흔 분이 쓴 오늘의 명시들을 가려뽑아 수록하고, 그에 대해 아름다운 문장으로 깊이있게 평설을 전개하면서, 김영태시인의 예술적인 컷을 곁들임으로써 시의 정수와 향기를 맛보게 하는 격조높은 명저
신국판/240면/값 3,500원

한국선시 감상서
그대 왜 그리 허둥대는가
金載弘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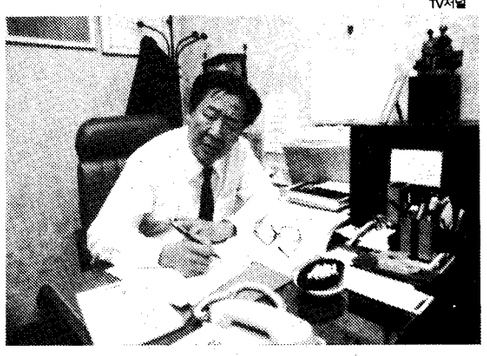
□ 禪詩란 바로 인간이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가려는 노력을 추구하는 시라고 할겁니다. 정신해방을 통해 인간구원을 추구하며 자유에의 길, 그 청정한 삶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신국판/240면/값 3,600원

시와 시학
Tel.594-0928 Fax 594-0929
서울 잠원동 14-10 한신 오피스텔 913호

金榮泰 무용수첩
■ 연두색 신의 家具들
시와 시학

한국현대시사의 쟁점
김은전, 김용직외저
〈주요목차〉
총론 한국 현대시 연구의 반성 / 김용직
근대시·현대시의 개념과 기점 문제 / 오세영
한국 현대시의 전통논의 / 김대행
Ⅰ부 일제 강점기 시사의 전개 / 한계전
개화기의 문체와 장르선택 / 권오만
상징주의의 수용과 문제점 / 김은전
초기 자유시 형성의 몇층위 / 이숭원
한국 낭만주의시의 특질 / 박호영
프로시의 의미와 한계 / 박윤우
서사시 논의의 개요와 쟁점 / 조남현
순수 서정시 운동의 시대적 의미 / 정효구
모더니즘의 의미와 한계 / 최혜실
30년대 후반의 시적 상황 / 최두석
저항시와 친일시 문제 / 최병우
Ⅱ부 분단후 현대시사의 인식 / 김재홍
해방직후의 시단형성 / 권영민
전후 남북한 시단 형성과 시의 비교 / 윤여탁
민중시의 대두와 민족문학론 / 박대호
참여와 순수논쟁 / 김유중
80년대 시의 몇가지 양상 / 전영태
전화 594-0928
FAX 594-0929
시와 시학 신국판 516면 값10,000원

열심히 사는 사람들 1
요즘 세상 왜 이렇습니까?
돈? 권력? 학벌? 명예?
그게! 무엇이관데
최불암 자전에세이
그게! 무엇이관데
TV저널



최불암시리이즈?
왜 장안에는 최불암이 화제인가?
우리 시대의 연기인 최불암!
최불암이 드디어 탈을 벗었다.
절망, 자살, 사랑, 연기고백론….
전화 594-0928
FAX 594-0929
시와 시학 신국판 268면 값4,200원
주소: 서울 서초구 잠원동 14-10 한신오피스텔 913호